

명문장가, 이야기꾼의 문장을 읊기며 느껴 보는 한국 문학

아그넬 조셉(Agnel Joseph)

한국문학번역원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 편집장

‘문학 속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은 정확히는 외국인 필자인 ‘나’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필자는 한국어 전문가도 아니고 한국 문학 전문가도 아니다.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물론 글을 쓰는 지금도 그렇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또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영문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의 편집장으로 한국 문학을 접하긴 한다.

고심 끝에 이 글을 문학을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기로 했다. 왜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솔직히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와 같은 숭고한 이념보다는 퍼즐의 조각을 맞추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 언어의 구문, 어휘, 관용구와 같은 요소들을 다른 언어로 읊기거나 변형할 때 얻는 쾌락 때문에 번역을 한다. 창작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표현해야 할까. 아무튼 필자가 제일 잘 아는 한국 문학 속 ‘우리말’은 필자가 번역한 작품의 문장들이다.

필자가 접해 본 작가들 중 한국어를 자신만의 특유의 문장으로 능수능란하게 ‘구부리는’ 작가는 박민규 작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유주 작가, 황정은

문학
속
우리말

작가, 배수아 작가와 같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말의 가능성과 가능성을 펼치고 시험해 보는 훌륭한 작가 또한 많다. 필자는 이 중에서 박민규 작가의 문장들을 제일 깊숙이 알고 있다. 그의 문장을 번역하기 위해 필자도 공을 들여 영어를 ‘구부려야’ 한다. 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잘 파악해야 하고 영어 표현력의 한계를 시험해야 하는 즐거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다음 몇 문장들만 봐도 그가 명문장가인 것을 알 수 있다.

창에 맷힌 점점點點 수증기들이 검푸른 첨첩의 산을 먹으로 얼룩 지운다.

숲이라는 벼루를 다 갈아 버린 듯 창밖은 오로지 묵墨하고 묵默하다.

호상은 없다. 그 어떤 죽음도 비루한 일상日常일 뿐이다.

그녀는 청순하고 하늘은 청연清研해 기분이 좋은 것이다. 나는, 살아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인생을 알 수 없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먹고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낮잠〉 중에서[박민규(2010), 『더블』.]

그의 작품 중 〈龍龍(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제목부터 특이하다. ‘절’로 발음이 되고 ‘말 많은, 수다스러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용(龍) 자를 네 번 반복한 64획으로 제일 많은 획수의 옛 한자이다. 무협 소설처럼 쓰인 이 작품은 무림 고수들의 이야기이자 잊어 가는 옛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웃비(아직 우기는 있으나 좁 좁 내리다가 그친 비)”, “물 오름달(3월, 산과 들에 물 오르는 달)”, “슈룹(우산의 옛말)”, “귀잠(아주 깊이 든 잠)”, “는개(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도래솔(무덤가에 죽 들러선 소나무)”, “늘품(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 “멧부리(산등성이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와 같은 옛말, 내공(內家), 외공(外功), 발경(發勁), 장풍(掌風), 격산타우(隔山打牛)와 같은 무술 용어, 텐진(天神)과 같은 신화적인 동물/신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밀 같은 밤하늘임에도 마치 웃비가 내리는 듯 산 전체가 긴장했다.
 물오름달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들고, 검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상봉에 슈룹 같은 삿갓구름을 엎고 있었다.
 대형! 부끄러운 손방으로 이 무녀리가 아조 귀잠이 들었나 보옵니다.
 정의도 악도 윤슬 같고 는개 같아진.
 한 그루 도래솔처럼 쓸 곳 없는 스스로의 권을 봉하며, 그는 끝끝한 마음으로 끄덕이고 끄덕였다.
 늘픔 있는 세상은 아니라 해도 도담도담 다시 만난 이 세계가 성장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투둑, 비로봉 멧부리에 소나기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번역하면서 어휘나 표현의 문제를 떠나 문화나 역사적 배경을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龍蓮(절)〉에서 박민규는 한국의 현대 역사를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

오로지 눈뿐인 세상이었다. 정치꾼이 된 동지도, 귀족 노조가 된 후배도, 재벌의 뒤를 닦는 변호사 선배도, 고문 후유증으로 여즉 노모가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친구도, 실은 독재가 그리웠던 이웃도, 잘살면 그만인 민족도, 여전히 견재한 친일 후손도, 그보다 더 견재한 발포 책임자도, 어찌지 않고 어쩔 생각도 없는 대다수도, 실은 있지도 않았던 이념도, 있어도 소용없는 법도, 아빠도 2번 찍지 그래? 하던 딸도, 있지도 않았던 민주와 민중도, 그래서 모두가 이미테이션처럼 느껴지는 골짜기였다.

박민규 작가의 작품 중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자동차 판매원과 외계인이 등장하는 희비극이다. 예시로 들 수 있는 문장들이 많지만 번역가로서 제일 부듯했던 문장은 외계인이 자동차 판매원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깍쟁이”를 “깍두기”로 잘못 말하는 아래의 문장이다.

손가락을 흔들며 나는 윙크를 했다. 어머~ 하며 그녀가 탄성을 지른다. 자기 깍두기! 아마도 깍쟁이란 말을 잘못 배운 듯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시동을 건다. 부르릉. 우주여행의 시간이다.

“농담을 설명하는 것은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과 같다. 이해는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구리는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말장난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고 각주로 설명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번역’을 넘어선 ‘창작’이다.

필자는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번역하기로 했다.

I waved my finger and winked. Oh my! she exclaimed. You're my honeybitch! I guess she'd learned the wrong word for honeybunch. Anyway, I started my car. Vroom. It was time for space travel.

“honeybunch”는 귀엽등이라는 뜻이다. “honeybitch”의 ‘bitch’는 ‘암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숙어로 ‘종(남에게 얹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즉 “you're my bitch.”라고 하면 “너는 내 종이야.”라는 뜻이다. “honeybunch”와 “honeybitch”를 헷갈리는 것은 그럴싸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인 웃음의 강조점이 드러나서 좋다.(막상 설명해 보니 개구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비슷한 경우는 <양을 만든 그분께서 당신을 만드셨을까?>에도 있다.

이보슈, 유전자 친자 확인이라고 들어 보셨나? 내가 고갤 끄덕이자 아예 대놓고 통을 쳤어. 유전자 감식을 한다면 말이오, 실은 암스테르담 신생아의 절반은 내 아들딸들이오. 맙소사, 하고 내가 받아쳤지. 그럼 책에서 읽은 그… 뎅의 구명을 죽으로 막아 나라를 구했다던 바로 그분? 좋아 죽겠는지 놈은 발을 쿵쿵 구르며 뒤집어졌어. 눈물을 닦으며 놈이 말하더군. 아니…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사기꾼들.

이봐, 고… 사기꾼이란 말은 없어, 재주꾼이란 말은 있지만.

재주꾼들.

여기서도 “사기꾼들”과 “재주꾼들”的 말장난(?)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위에서 말한 “깍두기”와 “깍쟁이”的 말장난은 단어를 조금 달리해서 웃음의 강조점을 살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맥락상 원본의 뜻을 그대로 가져가야 했다. 다행히 영어에도 ‘사기꾼’과 ‘재주꾼’의 뜻을 가지며 소리도 얼핏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

My friend, have you heard of paternity testing? he said. When I nodded, he laughed in my face. If you run a test, half the newborn babies in Amsterdam will turn out to be mine. Jeez! I said, serving it right back to him, So that guy, the one who saved the country by plugging the hole in the dam with his schlong, that's you? He liked that so much he almost fell over, stamping his feet on the floor. As he wiped his tears, he said, No, that was my old man.

Grifters.

Hey, Go, grifter isn't a word. It's gifted.

Gifted.

여기에 더해 그의 글에는 그만의 특징이 있다. 구문이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줄 바꿈이다. 즉 한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단락의 첫 문장으로 이어진다. 때로는 한 문장을 세 줄로 나누기도 한다. 그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시적인 효과를 상기시키는 문장의 매끄러운 이행(異行) 위에 필자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 문장으로 돌아가 다시 읽으며 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경탄하고는 했다. 이런 줄 바꿈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어와 영어 문장은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다음은 <근처>라는 단편 소설의 문장이다.

우거진 녹음 속에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습필(濕筆)인 양, 늘어진 두엇 가지들이 뚝 뚝 젖은 그늘을 땅 위에 펼궈댄다. 번진다, 번진다

번짐이 멈춰선

저 근처다. 미소(微小)한 썰물처럼 출렁이는 그늘을 바라보며 나는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In the lush cover of the trees, I quietly nod to myself. Drooping branches become paintbrushes dipped in ink and drip wet shade onto the earth. The shade spreads and spreads and

where the spreading ends

close to there is what I'm looking for. I contemplate the shade as it undulates like an imperceptible tide and start pacing. One step, two steps, three steps.

어떤 물음에도 답하지 않은 채 등 돌린 달이 물 위를 걷고 있다. 느리고 단호한 걸음이다. 느려도 단호하게

이 밤이 진다.

The moon turns its back on me without answering any of my questions and walks away on the water with slow, resolute steps. Night falls,

slow but resolute.

필자에게 한국 문학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한국 문학을 번역한다고 해서 한국 문학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자에게 한국 문학이란 한국어로 쓰는 재주꾼들의 이야기와 문체이다. 그들의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다.